

대중강연

기후위기? 두려움을 걷어내면 기후기회!

김백민

국립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환경대기과학전공

기후위기는 현시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관련 담론은 탄소 감축만을 강조하는 피상적 수준에 머물거나, 위기감 조성을 목적으로 대중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한계를 보여 왔다. ‘기후위기 시계’와 ‘1.5°C 목표’는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기능해왔으나,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2°C 상승함에 따라 인류는 이미 상징적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무력감과 패배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발표는 기후위기를 둘러싼 공포 중심의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현실을 진단하고 위기 속에 내재된 문명사적 전환의 기회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위기는 종종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파국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혹은 ‘냉따러지 이론’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이러한 파국론적 프레임이 오히려 실질적인 기후 행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도의 멸종’과 같은 최악의 미래 시나리오(SSP5-8.5)는 현재의 실제 배출량 추세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 더 이상 현실적인 예측으로 보기 어려우나 정부 보고서 심지어는 학계에서조차 아직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나리오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배출량은 2100년까지 약 2.7°C 상승을 전망하는 중간 시나리오(SSP2-4.5) 경로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역적 인류 멸종보다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한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결국 에너지 문제로 귀결되며, 인류의 발전사가 에너지 전환의 역사였듯이 현시점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과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교차하는 문명사적 전환기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예측을 뛰어넘는 태양광 기술의 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이 비용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한 배출량 감축을 넘어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선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래 사회는 효율과 소유 중심의 ‘진보의 시대’에서 적응성과 재생, 공유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회복력의 시대(Age of Resilience)’로 전환될 것이며, 이는 인류에게 닥친 위협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혁신의 기회로 재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Key words: 티핑포인트, 에너지 대전환, 6도의 멸종, 1.5°C, 회복력의 시대